산으로 가는 민주당

계파간 갈등 속 9일 비대위원장 선출 험로 예고

당 쇄신 보다 조기전대론 부상…민심 역풍 우려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쇄신 작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당장,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할 예정이지만 계파 간의 이해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조정하고 당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원혜영, 이종걸, 이낙연,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계파 간의 이견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박영선 의원 등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아킬레스 건이다.

김한길,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 측으로 원혜영 의원은 주류 측으로 분류되면서 계파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

계파색이 옅은 박병석 의원이 정치적 역량 면에서 조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대위의 임기와 성격이 민주당의 쇄신을 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18일까지이나 최근 3월 전당대회 개최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9일 선출되더라도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비대위의 성격도 당내 쇄신보다는 조기 전대론이 부상하면서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쪽으로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민심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에서 제기한 '안철수 대선 필승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안철수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논란은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기득권 지키기로 비쳐지고 있다. 최소한의 쇄신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놓고서는 여당과 함께 '밀실 및 쪽지예산' 주고 받은데 이어 예산안 처리 직후, 일부 의원들이 '외유 논란'까지 휘말린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여야 합의까지 했다가 본회의 직전 당내 반발이 일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당내외에서는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기득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대선 패배의 평가 작업도 외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내 핵심 인사는 "현재 구도로 비대위원장이 선출된다면 당내 세력간의 적당한 타협이 이뤄지면서 어떠한 쇄신 작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감한 쇄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 당내 기득권 최소화를 근간으로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민주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일 남은 인수위 "바쁘다 바빠"

국정철학 구체화·정책 밑그림 작업 등 분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 50일 동안 정권 인수와 새정부 설계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했고 인수위도 첫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잇따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박 당선인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오늘 받은 임명장은 국민께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라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인수위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0년이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어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인수위 분과를 7개에서 9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과 인수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박 당선인이 임기 5년간 구현할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국민대통합·민생정부의 기치에 부합하는 정책의 밑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조정분과 등 9개 분과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 전반에 걸친 박 당선인의 비전·공약과 현 정부의 정책을 정밀 비교분석하는 '정책조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이뤄지게 된다.

인수위는 또한 정책 활동과 함께 새정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선 작업은 인수위원들의 몫이라기보다 박 당선인 비서실의 업무가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 수석 부대표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친일재산 환수,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이동흡 후보자의 전력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위법 판결

올해 도입 추진 광주시의회 난감

시의원 '개인 보좌관' 24명 신분 모호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다수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고, 유급보좌관제 추진을 계획중이던 광주시의회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장이 '시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기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몇 차례 정식 보좌관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했고, 올해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광주시의회가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현재 광주시의원 26명 중 24명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사실상 유급보좌관제도인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같은 해 전남도의회도 유급보좌관 도입을 시도했지만, 여론에 밀려 좌절됐다. 이어 지난 2011년에는 이후 시의회는 몇 차례 정식 보좌관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 안팎에서 '정식 보좌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 보좌관'들의 신분이 모호하게 됐다.

이들 보좌관은 의원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수조 원대의 예산을 심의하고, 수 많은 산하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보좌관은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을 어떻게 대우해야할지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도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대선 전 대통령 후보들도 전국 시·구의원 결의대회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올해는 지방의회 간 연대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막말 일삼는 윤창중 사퇴를"

민주당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인수위 인선가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정면 반박한데 대해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인선 배경 설명도 못하는 인수위 대변인이 앞장서서 야당을 비난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박 당선인의 활동과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므로 이 또한 정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밀봉인사로 구성한 보수 편향 아카데미 인수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분란을 일삼고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안기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에 희망 주도록 정치인들 변화 모색해야"

광주 찾은 손학규 고문 … 15일 독일 출국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5일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민주통합당)가 제대로 대선에 임하지 못해 정권교체에 실패했다"고 18대 대선 결과를 자평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 산행에 앞서 지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고 또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도 홀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염원 속에 당선됐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언급하며, "국민의 좌절에 정치권이 희망을 주지 않으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혁신을 요구했다.

오는 15일 독일로 출국하는 손 상임고문은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말해 내용을 충실히 채우지 못했다"며 "독일에 가서 내용을 채워 돌아오겠다"고 독일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복지국가는 규모나 산업구조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며 "독일에서 복지제도, 노사관계, 환경, 에너지, 통일문제 등과 대선과정에 제시된 새로운 정치와 정당제도를 고민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약 6개월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독일 사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상임고문은 산행 후 오후에는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상경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 NPL 물건 특수 물건
▶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임장/교육비 등등 550만원
NPL 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세 無
▶소액투자 가능, 대출多
▶단기내 고수익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공장[용전동] ☜ 대2315㎡ , 건1542㎡ 감정가 22억 최저가 14억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